

학문 성과 회향 '마지막 발원'

산문박의 禪

고대 철학과 김충렬 명예교수



고인의 책을 읽으며 성현되기 바랐다(讀古人書希聖賢)
 나와 성현 둘 아님을 이제 와서 체득했네(而今體會性中天)
 하늘에 닿은 저 반공, 웃기며 여우 리트니(許宮城極欲歎)
 도통이 여기서부터 만세에 퍼졌어라(吾道斯萬世傳).

지난달 30일 고려대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진 김충렬교수(동양철학·65)의 저서 '산문박의 禪'을 배알하고(拜謁聖孔子禪)다.
 중국 쉰리의 공자묘를 참배하고 지은 이 시는 유가의 성인을 기리며 지은 시이지만, 그의 40여년 학문 연찬의 목적과 서원, 학문적 성과와 감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즉 그의 학문하는 목적은 성인(聖人)을 이루어 '도와' 하나 되는 것(道通)은 것'임을 분명히

의도 피곤한 줄 모른다.
 반면 준비가 부족하거나 폭처를 마신 다음날 강의는 웬지 신중치 않다. 학생들의 반응도 시무룩하다. 이처럼 학생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정이 오로지 '정성 성(誠) 자에 달리었다는 게 강단 생활에서 얻은 확실한 교훈이란 것이 김교수의 체현담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지라 그는 언제나 뜻밖의 선비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독서와 사색, 연구와 산책, 저술작업과 '시 쓰기' 등이 차분하고도 균형있게 이어진다. 학문활동을 수행으로 여기는 그에게 일상의 생활도 참선이란 것이었다. 그야말로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그대로 참선의 연장이다. '독서 삼매'와 '서도 삼매' 등의 단어가 그에게는 일상적인 말일 뿐이다.
 "이제 7지보살에 이르지 않았나 생

'유불선 회통' 학문 연찬 40년... "강의·저술도 참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성인(聖人)은 공자일 수도, 노자와 장자일 수도, 부처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자의 진리인 道는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동양철학계의 원로로서 62년 중국 문화대학 강단에 선 이래 지금까지 원시유가·도가·대승불교를 학문의 3대 축으로 삼아온 그의 학문적 성향은 불·유·도 '3교 회통(會通)'의 정신이다. 그는 사회인으로서의 국가관·인간관 유가의 '도덕'을, 시작(詩)과 서도(書道) 등 예술적 감성은 도가의 '자유'를, 인생과 우주를 관조하는 존재론 불가의 '회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5년여의 강단생활을 마감한 그는 한마디로 "후회없이 연구하고 정성껏 가르쳤다"고 말한다.
 저녁에는 다음날 강의를 위해 강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읽고, 강의가 있는 날 새벽에는 누워서 강의할 내용을 머리속에서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강단에 서면 신이 난다. 열렬하는 스님처럼 준비해 온 강의내용이 저절로 쏟아진다. 무아지경(無我之境)에서 생각지도 않던 말까지 튀어나온다. 학생들의 얼굴엔 진지함이 서려 있고, 강의실은 법거량하는 도량(道場)이 된다. 흥이 나서 3시간 연속 강

강의 준비 꼼꼼히 하고 강단에 서면 열렬하는 스님처럼 무아지경에서 생각지도 않던 말까지 튀어나오고 강의실은 법거량 도량이 된다

강해 봅니다." 농담삼아 하는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닌 듯하다.
 "7지보살은 언제든 지 중생으로 떨어질 수 있기에 불퇴전(不退轉)의 경지인 10지보살, 부처님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는 그의 말에는 대원력이 실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생활에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의 씩씩한 학문 연찬의 길은 이제 고향인 강원도 문막의 서재에서 이어진다. 집필에만 전념키 위해 50평 규모의 서재를 마련해 놓고 8천여권의 장서도 이미 갖다 놓은 상태. 교수 생활 35년여동안 지난날까지 <중국철학사 1, 2> <동양사상 상고 1> <중국철학사 1> <노장철학강의> 등 10여권 이상의 저서를 펴낸 그는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회합사상 연구> <중국 대승불교> <조론(詔論)> 등 불교학 연구서

도 책으로 낼 예정이다.
 이같은 왕성한 그의 저술활동은 충실한 강의와 끊임없는 논문 발표로 직결되어 있다.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을 전하는 그의 명강의는 장기적인 연구 계획 아래 꼼꼼한 준비로 이루어지고, 그의 학문하는 목적이라면 '하화중생(下化衆生)'은 강의와 저술활동에 해당한다. 만년에 그의 호를 '보조(普照)'로 쓰고 싶다는 바람도 이런 연유에서다.
 '대족 같은 선비'로 일관해 온 그의 학자적 삶은 그의 호와 상응해 왔다. 청

광(淸狂)과 허주(虛舟)로 청년기를, 토홍(吐虹)과 중천(中天)으로 40~50대를 지나 온 그는 이제 보조(普照)의 달인을 꿈꾼다. 중년기의 '호'였던 토홍과 중천은 둘다 지도교수였던 중국철학의 대가 방위교수(국립대안대학)가 붙여준 것으로 각각 '방의 기운이 하늘로 솟는 듯 맑은 정기를 통한다', '기운이 하늘에 다다른다'는 뜻이다. 그의 학문적 열정과 그것을 집착해 하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무지개를 토하고 하늘에 이른 용이 여기서 멈출 리가 없다. 그는 다시금 대일(大日)여래처럼 깨달음의 밝은 빛을 중생에게 비추는 태양이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호를 '보조'라 한 것이다. 그의 좌우명이 '하늘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비천민인(悲天憫人)'이란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얻은 글이다.
 "우주와 천지신명에 감사하면서 하늘과 부모의 은공을 사회에 되돌리는 것이 저의 마지막 원력입니다."
 엄격한 유교집안이면서도 부랑당과 원찰을 둔 불교집안에서 한학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청·장년기에 유가와 도가를 깨닫고, 이제 화엄의 사사무애법계(事事無礙法界)를 관통하려 한다.

김재경 기자

채식보급 불자 도리인지요

네가지를 여쭙겠습니다.
 ①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니라 하는데 그렇다면 사찰에서는 왜 이판과 사판을 구분하는지요? 수행승은 소수이고 스님이 의식이나 기록에 치중한다면 정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②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은 어떤 인연 때문인지요? 그들의 과보는요?
 ③ 믿음이 약한 탓인지 자꾸 의심이 생겨서 자성내래불을 외며 스님의 말씀대로 주인공을 관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적연해지면서 문득 삼체가 내 한 생각 가운데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일체가 마음을 근거해 가상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렬하면서 관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는지요?
 ④ 순수 채식하는 미국의 한 기독교 종파 사람들은 평균수명이 미국인 평균보다 10년이나 길다고 합니다. 채식이 영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실례인데 그렇다면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보급하는게 불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김도원·경복 문경사>

으니 그 한발 없어졌고 새로 한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법적이고 회향했다는 뜻이지요.
 열렬하는 이가 열렬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마치 버스 지나갔는데 버스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렬하다는 생각이 없다면 길고 짧다 할 것이 없으니 그 생각 있으면 더 답니다.
 ④ 그 말이 틀리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옛날 어떤 사람이 길가다가 풀벌레를 밟아 죽임까봐 짚신에 방울을 달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해서라도 살생을 피하려 했지만 자책있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율을 깨지 않고 지키려는 것은 좋하겠지만 풀벌레 짐승도 풀이 아니니 한점 먹어줌으로써 풀이 아니게 인도 환생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 선지식이라면 풀벌레가 천년을 기다려서라도 그 발아래 밟히기를 바랄 것입니까.
 순수채식을 말씀하셨는데 채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다르다 하겠습니까? 식물을 먹으면 계율을 깨지 않게 되고 동물을 먹으면 깨는 것이라고 누가 그러니까?
 인도 환생시킬 자격이 있고 없고 문제가 지 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 동물이 동

지 상 상 답

길을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공정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답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물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① 사관·이판은 소임입니다. 사관·이판이 둘이 아닌 가운데 제각기 상품 자체로서는 그대로 정법이 아니겠습니까? 정법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둘 아닌 도리에서 바른 공법으로 나가느냐 아니냐에 있지 소임에 있지 않지요? 여러분들 각자의 생활속에서 다 소임이나 배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둘 아닐때 정법이 됩니다.
 ② 배탈이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한 개체 속에 수많은 중생이 같이 살고 같이 작용하고 있으니 누구의 책임 일까요? 더불어 같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까? 더불어 같이 했으니 누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도리를 알아야 공한 도리를 안다. 한발 떼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공한 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나 없는 줄을 알면 싸운 사이도 죽은 사이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게 한 놈도 혼자 아니고 무엇을 한 놈도 혼자 아닙니다. 혼자했다 혼자 받는다 하지만 혼자자 아닙니다.
 그 과보가 어떤 것이냐 하시는데 그건 묻지 않아도 아실겁니다.
 ③ 열렬하면서 관하는 방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고평가하는 안됩니다.
 어떤 선사가 공부하면서 자기를 보고 주인 공이라 부르면서 예를들어 "주인공, 아침 먹었느냐?" 했고 스스로 답하기를 "벌써 식기 닦았습니다" 했더라면. "밥 먹었니" 했는데 "식기 닦았습니다" 한 것은 한발 떼어 놓

물로 보이면 못먹을테고 둘로 보이지 않다면 먹을 수 있겠지요.
 마음도리의 반야줄을 잡고 가는 이야 부득이해서 닭잡고 소잡을 때는 둘이던 도리를 관하고 가면 무명을 벗기는게 되겠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어라 죽어라 둘이던 도리를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 아프지 않게 고통없이 죽어 그 모습을 바꿔 해탈로 이끌 수 있어야 하고 인도 환생해 하려면 그 중생을 어디에 걸어 씌어 나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니까 쉽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눈물겹고 기막힌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나 혼자 깨달으면 빛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 혼자 깨달아서 그걸 나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둘이 아닌데 어찌 나 혼자 안다고 나이라 하겠습니까? 기막힌 일을 생각하면 차라리 나도 아니고 고도 아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뜻이 가장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방상하 일체만물 만생을 둘로 보지 않고 본래 나라고 내세우게 없는줄 알아야 완성이 됩니다.
 내 자식 내 부모 하지만 그 또한 다생(多生)을 돌고 돌면서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어 보았으니 지금의 육의 부모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나의 형제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체를 같이하니까 내가 공해서 내가 없습니다. 그렇게 둘 아닌 것을 알아야 오늘 질문하신 분도 그 답을 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학인 모집 공고

-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

한국불교의 강학전통을 계승하고 승가대학(강원)과 학림의 전문교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가대학원"을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모집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모집인원 : 20명 내외
2. 모집기간 : 불기 2540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3. 응시자격 : 승남 10년 이상인 조계종 비구승으로 중한 제9조 3항의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자
 가) 강원 사립과목 중장 경력 2년 이상자
 나) 불교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다) 강원과 동국대 또는 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의 두 교육기관을 모두 졸업한 자
4. 제출서류 : 가) 본 승가대학원 소정 응시원서 1부
 나) 승적증명서 1부
 다) 최종학력 증명서(승가학력) 1부
 라) 경력 증명서 1부
 마) 사진(반명함판) 3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6. 전형일자 및 장소 : 불기 2540년 9월 23일 오전 10시 교육원 회의실
7.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8. 개 강 : 불기 2540년 10월 7일
9. 교육기간 : 3년
10. 교육장소 :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11. 원서 접수 및 문의 : 우) 110-170 중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전화) 02)732-4923-4
12. 기 타 : 가) 본 교육기관 졸업자는 승가대학(강원)과 학림의 교수자격을 부여함
 나) 교과목은 사교, 대교, 수외과목과 그의 보완과목
 다) 교수는 중단의 강백스님(전통적인 강의)과 관련과목 전공교수(특강)
 라) 연구비 지급

불기 2540년 8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대학원 대 학 인 장 무 비
 운영 위원장 법 타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를 사 용 해 보 세 요 !

태아가 임파의 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외로움이 있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전반반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딱딱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뇨와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